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KOREAN INTERNATIONAL SCHOOL HCMC

보 도 자 료

자료 문의	업무담당 송유나 028-5417-9021(EXT.467), ynsong0116@kshcm.net 홍보담당 이강현 028-5417-9021(EXT.498), dlrkdgus@kshcm.net

2026학년도 한글날 문예 행사 개최
- 한글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체험하다 -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교장 김명환)는 10월 30일(금),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알리고 우리말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한글날 문예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중등부와 고등부 학생들의 발달 단계와 관심사를 고려하여 다채로운 체험 부스와 문예 대회로 구성되었다. 중등부는 한글 도장 편지쓰기, 한글 종이접기, 우리말 겨루기 등 10개의 체험 부스에 참여하며 한글을 즐겁게 경험했고, 고등부는 산문 창작, 운문 창작, 시화, 주제 말하기, 시낭송, 미디어 비평 등 6개 부문에서 자신의 창의력과 표현력을 발휘했다. 학생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우리말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중등부, 열 가지 체험 활동으로 한글을 즐기고 우리말의 소중함을 배우다

7~9학년 학생들은 한글의 창제 원리와 우수성을 이해하고 우리말을 더욱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된 10개의 체험 부스에 참여했다. 각 부스는 한글과 우리말을 놀이, 예술, 신체 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우리말 극장’에서는 한글 창제의 과정과 우수성을 소개하는 영상을 시청하며 훈민정음의 창제 정신과 가치를 이해했다. ‘우리말 겨루기’에서는 맞춤법과 한글 창제에 관한 퀴즈를 풀며 우리말에 대한 지식을 겨루었고, ‘훈민정음 한마당’에서는 탁구와 제기차기, 투호, 딱지치기, 윷놀이 등 전통 놀이와 운동 경기를 즐기면서 외래어와 외국어 대신 우리말을 사용하는 특별한 경험을 했다.

또한 ‘천지인 뛰뛰기(한글 펌프)’에서는 제시된 글자에 맞춰 천지인으로 구성된 글자판을 밟으며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익혔다. ‘한 호흡에 말하기’와 ‘몸으로 말해요’에서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문장을 한 호흡에 빠르게 읽거나 몸짓으로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표현하며 친구들과 협동하는 즐거움을 나누었다.

이 밖에도 ‘한글 도장 편지쓰기’에서는 자모 스탬프로 편지를 꾸미고, ‘한글 종이접기’에서는 색종이를 접어 한글 자음과 모음을 표현하는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한글을 배우는 즐거움을 느끼고, 일상 속에서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자연스럽게 깨달았다.

고등부, 여섯 가지 문예 대회에서 창의력과 표현력을 펼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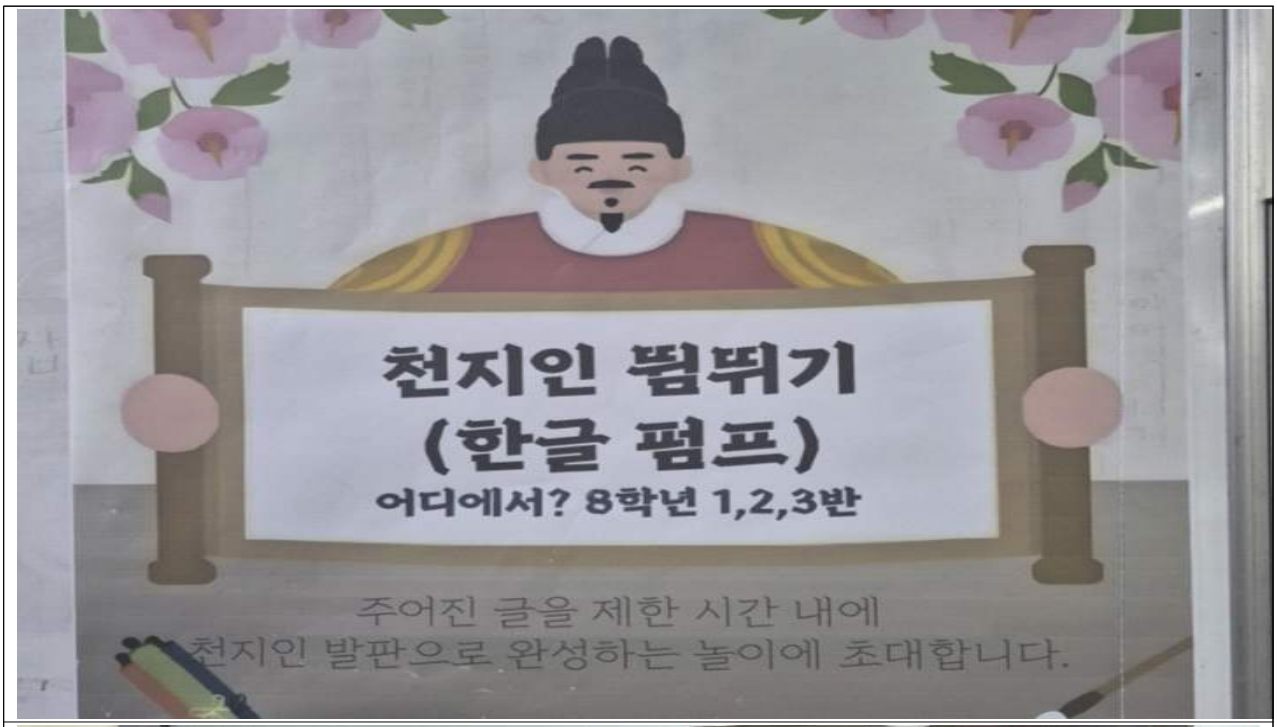
10~12학년 학생들은 ‘산문 창작’, ‘운문 창작’, ‘시화’, ‘주제 말하기’, ‘시낭송’, ‘미디어 비평’ 등 여섯 부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참여했다. 각 부문은 학생들이 주어진 글감이나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개성 있게 표현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언어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산문 창작’ 부문에서는 제시된 글감에 따라 일정 분량 이상의 산문을 작성하며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진솔하게 풀어냈다. ‘운문 창작’ 부문에서는 글감에 어울리는 주제와 표현 방법을 구상하고, 창작 의도와 표현상의 특징을 담은 창작 계획서와 함께 작품을 완성했다. ‘시화’ 부문에서는 제시된 여러 편의 시 가운데 한 편을 선택하여 시의 정서와 주제를 그림으로 재해석하며 문학과 미술이 어우러진 창의적인 작품을 선보였다.

발표와 표현 활동도 이어졌다. ‘주제 말하기’ 부문에서는 제시된 여러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청중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달했으며, ‘시낭송’ 부문에서는 마음에 드는 시를 골라 배경 음악과 그림, 동영상 등을 활용하여 작품의 정서와 감동을 효과적으로 표현했다. ‘미디어 비평’ 부문에서는 미디어를 시청한 뒤 일정 분량 이상의 비평문을 작성하며 미디어에 담긴 내용과 관점을 비판적으로 살펴보았다. 학생들은 글쓰기와 말하기, 예술적 표현, 비판적 사고를 아우르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깊이 있게 탐구하고 표현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한글날 문예 행사는 학생들이 한글의 과학성과 우수성을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말을 활용하여 생각과 감정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소통하는 경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한글과 우리말의 가치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하며 사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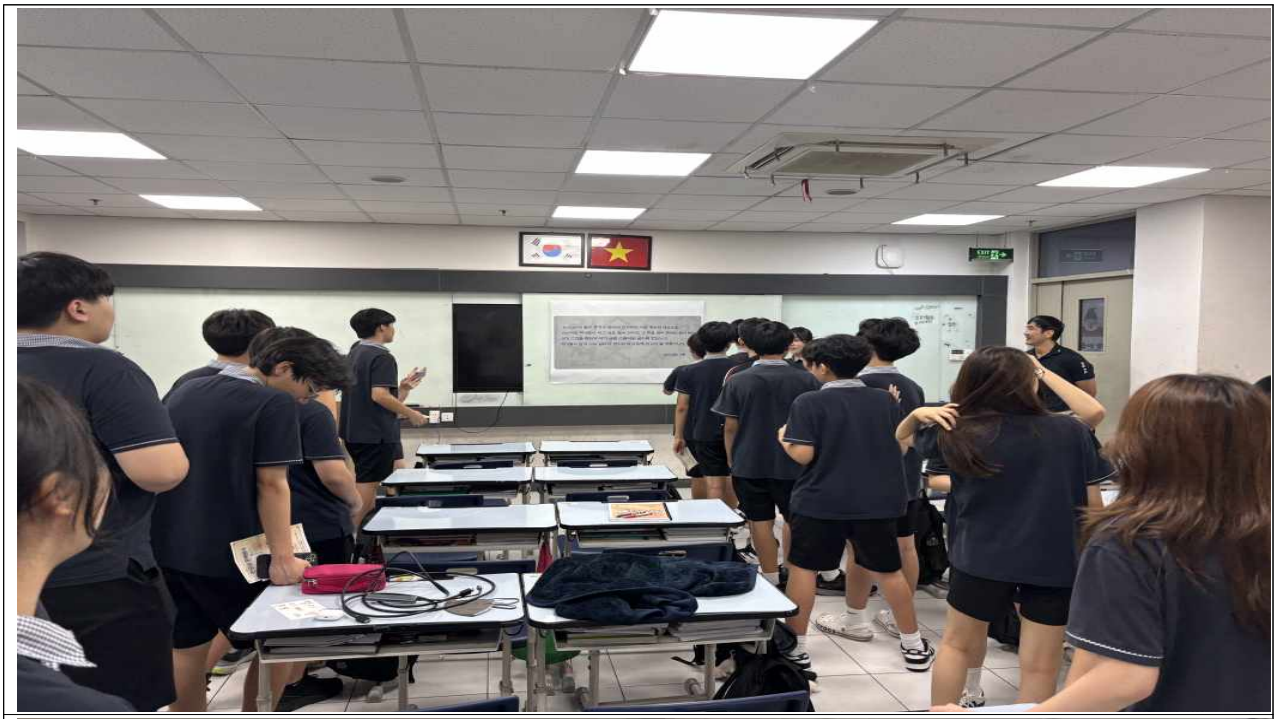
[사진 자료]


천지인 뛰뛰기
(한글 펌프)
어디에서? 8학년 1,2,3반
주어진 글을 제한 시간 내에
천지인 발판으로 완성하는 놀이에 초대합니다.






조선
훈민정음
訓民正音
1443년, 글을 읽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해 세종대왕이 만든 글자.
말을 가란의 모습과 하늘, 땅, 사람의 모습을 본떠서 만든 28개의 소리
글자로, 누구나 쉽게 익히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
훈민정음
ㄱㅋㅇㄷㅌㄴㅂㅍㅁ
ㅈㅊㅅㅎㅎㅇㄹㅿ
ㆍㅡㅣㅗㅏㅜㅓ
ㅛㅑㅠㅕ




나에게도
자물쇠가 철컥 열리는 순간 같은
그런 때가 있어요